

성경적 고찰

이제 성경을 고찰할 때가 되었다. 소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주로 예를 드는 것이 오경에 있으므로, 우리의 성경적 고찰은 오경에 한정하기로 하자.

1. 창세기 2~3장과 원죄의 문제

최초 인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에는 '죽고 또 죽는' (반드시 죽는)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다(창2:17). 그러나 인간은 사탄의 간교한 꾀임에 영적으로 의지적으로 빠져 죄를 범하게 되었고, 경고된 결과(창3:16~19)가 주어졌다. 여기에 주어진 것은 인격적인 판단에 따른 실제적인 삶의 결과이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일반적으로 경고하신 것에서 발전하여 세부적 심판의 내용이

표현되었다. 이것을 저주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창세기의 이 본문에서 저주라는 것은 수식적인 표현이지 본질적인 표현은 아니다. 본질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 인간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행동이다.

또 혹자는 이렇게 해서 생긴 원죄를 말하면서 소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물론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아주 일반적인 개념인 원죄라는 말로 기독교회는 인간존재의 죄와 죄성에 제한되는 사실을 설명해 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일반적 개념이 죄의 유전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창세기 2~3장으로 설명해 보면 인간의 두 조상이 그렇게 반드시 죽는 삶을 살기에 그에게서 나오는 자녀들이 역시 죽은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 죽은 나무에서 나오는 것은 역시 죽은 가지이기 때문이다. 생

명이 없는 가운데 태어나는 것은, 비록 육신의 출생은 계속된다 하더라도, 이미 죽은 것이지 그 속에 썩음의 저주가 전수되는 것은 아니다. 아담 이하의 자손들은 이런 이미 지어진 죄, 죄성, 죄의 결과, 죄의 영향 아래 살뿐이지 이것을 저주가 전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창세기 4~6장에 나타난 가인의 후손들의 범죄
가인의 범죄는 아담의 죄가 유전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기보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썩을 수밖에

육신의 출생은 계속되더라도,

이미 죽은 것이지 그 속에 썩음의 저주가

전수되는 것은 아니다.

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지낼 수 있었으나 인간은 죄의 원인자인 사탄의 세력에 노출되어 있었다. 하나님이가인과 하는 대화(4장)와 아담과 하는 대화(3장)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단순한 죄의 유전 정도가 아니라 심각할 정도의 죄의 발전을 보게 된다. 아담에게는 없는 뻔뻔함, 비접함, 문제의 핵심을 피해가는 거짓스러운 모습은 바로 다음 세대인 가인에게서 본다. 엄청난 죄의 발전이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4:6~7)은 특이하다. "죄가 문 앞에 앉드리어(으르렁거리고)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정복해야) 한다." 여기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벌써 인간 속에 죄성이 그렇게 커져서 인격체로서 문 앞에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인